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43
----------	------

2020년 12월 21일  
운 영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10.16. 정진술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0.10.26.

다. 상정 일자 : 제298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 2020년 12월 2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서부지역 광역철도(원종·홍대선, 16.3km)를 포함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결정('16.6월)한 바 있고, 2020년에는 홍대~원종~청라 구간의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되어 B/C=1.03이라는 결과를 얻은 바 있음. 또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시된 서울을 동·서로 연결하는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25.72km)이 2021년 착공 예정임.
- 서부지역 광역철도와 강북횡단선은 서울을 동·서로 연결하여 도시철도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는 서울의 미래비전을 추진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노선임.

- 이에 서부지역 광역철도와 강북횡단선의 원활한 건설 추진과 교통연계 등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 교통혼잡 개선과 강남·북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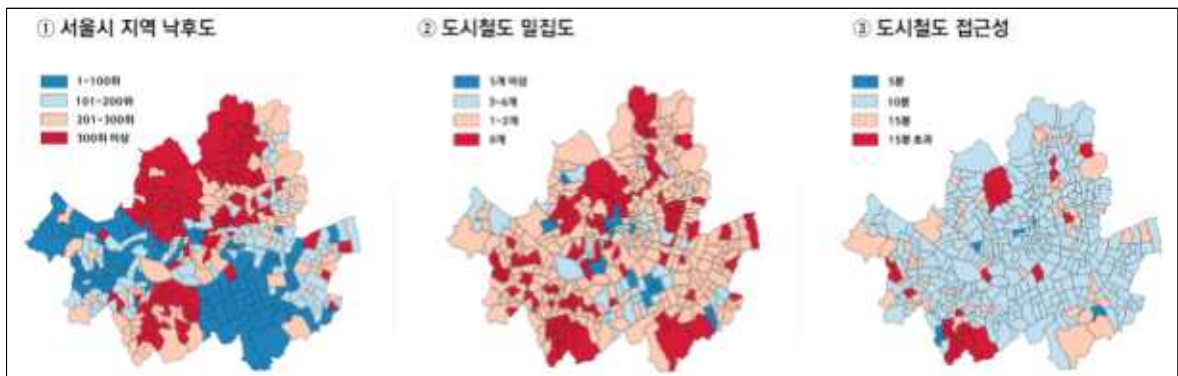
###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원종~홍대선)와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등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그동안 도시철도 소외지역인 서부권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의 미래비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강서·양천·마포 등 서울 서부권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역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도시철도 밀집도와 그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타 권역에 비해 도로교통 이용 점유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

<서울시 관내 지역 낙후도, 도시철도 밀집도 및 접근성 현황>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6.27.)에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난 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 부천시 원종역부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까지 총 16.3km의 원종~홍대선<sup>1)</sup>이 포함됨. 그러나 일부 노선 조정과 차고지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연되다가 최근 3기 신도시 지역인 부천 대장지구까지 연장하되, 국토부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었으나 향후 원활한 추진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 한편,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2019.2.21.)에 강남·북 간 지역균형발전과 철도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청량리부터 목동까지 총 26.72km의 강북횡단선<sup>2)</sup>이 포함되었음.
-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1.5년), 노선별 기본계획(1.5년), 기본실시설계(2년) 등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 이에 본 결의안은 원종~홍대선을 비롯한 강북횡단선의 원활한 추진과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의 해결 등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특히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서북·서남권의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 및 지역균형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원종~홍대선과 강북횡단선의 구체적인 건설 방안에 대한 전문적 평가와 시행(도시안전건설),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조(교통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sup>3)</sup>

---

1) 세부사항은 참고1 참조

2) 세부사항은 참고2 참조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 본 결의안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2항4)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원종홍대선과 강북횡단선의 원활한 건설 추진, 서부권역 교통혼잡개선 및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두 노선의 조속 추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참고2), 나머지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제시가 없었음.

---

4)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1943
----------	------

발의연월일: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정진술, 최 선, 오현정, 김경우,  
이정인, 이은주, 김상훈, 홍성룡,  
송명화, 김평남, 장상기, 이승미  
의원(12명)

##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 2. 제안이유

- 정부(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서부지역 광역철도(원종·홍대선, 16.3km)를 포함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결정('16.6월)한 바 있고, 2020년에는 홍대~원종~청라 구간의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되어 B/C=1.03이라는 결과를 얻은 바 있음. 또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시된 서울을 동·서로 연결하는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25.72km)이 2021년 착공 예정임.

- 서부지역 광역철도와 강북횡단선은 서울을 동·서로 연결하여 도시철도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서울의 미래비전을 추진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노선임.
- 이에 서부지역 광역철도와 강북횡단선의 원활한 건설 추진과 교통 연계 등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 교통혼잡 개선과 강남·북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부(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경기도 부천시 원종역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입구역까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16.3km, 총 사업비 2조 1,664억 원의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인 원종·홍대선을 포함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2018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원종홍대선의 중단 없는 추진을 지원하였다.

이어 2019년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원종·홍대선을 광역교통 비전 2030에 포함시켰고, 2020년에는 홍대~원종~청라 구간의 사전 타당성조사가 진행되어 B/C=1.03이라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또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시된 강북횡단선이 2021년 착공예정이다.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은 총연장 25.72km로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 서남권의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강남·북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기반 시설로 기능하여 동·서간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또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서부지역 광역철도(원종·홍대선)와 강북횡단선은 서울을 동·서로 연결하여 도시철도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서울의 미래비전을 추진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도시철도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비 2조 1,664억 원과 2조 54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여러 문제로 인하여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서부지역 광역철도와 강북횡단선의 원활한 건설 추진과 교통 연계 등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 교통혼잡 개선과 강남·북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한다.

2020. 10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